

세계 최초로 광방식 전자지불시스템 줍(zoop) 개발

최고를 향한 열정 (Heart for Excellence)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현금카드, 교통카드가 사라진다. 물론 현금은 필요없다.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 식당이나 극장, 대중교통, 주유소 등 돈이 오가는 모든 곳에서 휴대폰 단추만 누르면 금융 결제가 끝난다. 각종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닐 필요도 없다. 카드 사고가 날 염려도 없다.’ 상상만 해도 편리한 서비스가 올해 9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 휴대폰 광지불 전문업체인 하렉스인포텍(대표 박경양 www.mzoop.com)이 개발한 ‘줍(ZOOP)’ 서비스다.

‘최고를 향한 열정’ (Heart for Excellence)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의 슬로건이나 영화제목이 아니다. 휴대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내장시켜 휴대폰을 결제 수단화해 휴대폰신용카드 세상을 연 하렉스인포텍의 사명이 탄생한 모태 슬로건이다.



줍(zoop) 국제표준 채택

하렉스인포텍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이름이 더 잘 알려진 업체.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광방식 전자지불시스템인 줍(zoop)을 개발, 벤처업계에선 기술독립군의 기수로 통하는 몇 안되는 기술벤처중의 하나다.

하렉스인포텍은 최근 사업관건인 기술 상용화 여건이 급속히 호전되면서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광방식 전자지불시스템 ‘줍’이 지난 4월 광결제 분야의 세계표준안으로 채택 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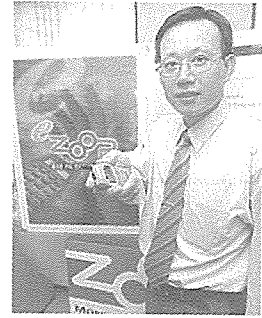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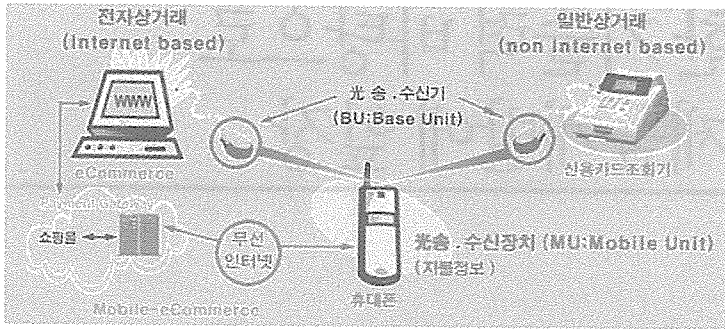
박경양 사장은 “오는 7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9월부터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휴대폰을 출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휴대폰이 대중화 됐고 대부분의 업소에 카드리더기가 설치돼 있는 등 불필요한 사업 인프라축적이 필요 없어 매출급증은 시간문제”라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생활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벤처로 우뚝

‘줍’은 적외선 통신이 가능한 휴대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내장, TV의 리모콘을 사용하듯 버튼을 눌러 신용카드 대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따라서 일반인들은 ‘줍’을 장착한 휴대폰 하나로 버스, 지하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교통시설 이용은 물론 백화점, 영화관, 레스토랑 등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상거래를 손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박경양 사장은 “휴대폰으로 신용카드기능을 대신할 수 없을까지는 단순한 생각에서 사업구상이 이루어졌지만



1997년 말부터 3년여에 걸친 피나는 연구개발 끝에 결국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켰다”면서 “앞으로 플라스틱카드가 필요 없는 생활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벤처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외선 통신 기능을 갖춘 휴대폰이나 개인휴대단말기는 전세계적으로 2억5000여만대가 보급돼 있으며 신용카드 및 현금을 통한 개인결제 규모는 80조달러에 달하고 있다.

세계 최초 개발로 사업 확장 가능성이 커

하렉스의 박경양 사장은 “근거리 통신 분야에서 블루투스(Bluetooth)가 금융 결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 났기 때문에 적외선 통신 기술이 새로 각광받게 됐다”며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TV 리모컨처럼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렉스의 과제는 제휴사 확정을 마무리짓고 아직 미정인 금융결제 분야의 적외선 통신 기술 규격을 선도하는 일인데, IrDA컨퍼런스 기간에도 다국적 신용 카드 회사 및 통신·단말기업체들과 제휴 협상을 벌였다.

박 사장은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회원사들은 시장 선점업체의 기술을 표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서를 보였다”며 “하렉스가 시장에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업계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박사장은 “휴대전화 지불 시스템은 획기적인 신개념도 아니고 난해한 기술도 아니지만 그동안 관련 업체들이 눈치를 보면서 상용화를 미뤄 온 탓에 일단 시장이 형성되면

무서운 속도로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렉스가 IrDA컨퍼런스에 참가한 것도 IrDA측의 서비스 시연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하렉스는 이번에 IrDA 회원사로 가입하면서 동시에 이사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장래성을 인정받았다.

IrDA에는 비자인터내셔널, 노키아, 모토롤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의 신용카드사와 통신 및 컴퓨터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데 하렉스는 내년 1월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주최할 계획이다.

하렉스의 사업 방향은 광지불 건수대로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브랜드 판매 회사로 성장하는 것으로 다양한 솔루션별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다.

박사장은 “하렉스의 줌(zoop) 상호를 단 휴대폰은 전세계 어디서건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는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게 최종 목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취재/김현희 기자〉

